

여야, 하반기 원구성 이번엔 과방위·행안위 다툼에 발목

국회의장 주재 회동서 21일까지 마무리 적극 협조키로 민주, 과방·행안 사수 기조 속 행안위 양보 대안카드 검토도

여야는 19일 하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을 이어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핵심 쟁점인 행정안전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배분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섰다.

특히 과방위는 방송·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행안위는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양보할 수 없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논리지만 당 일각에서는 '원내투쟁'을 위한 빠른 원구성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마치고 나와 기자들에게 "아직까지는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과방위와 행안위 부분에서 이견이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된다"고 답했다. 그는 또 "의장 중재안이 없다"며 "(민주당의 양보안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아직은 여야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며 "오늘 기준에 자기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 서로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원 구성 협상을 오는 21일까지 마무리 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양보한 만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만큼은 반드시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까지 이 같은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게 공식입장이다.

반면, 민주당 내에서는 원 구성 협상 교착이 장기화하면서 야당이 한 번 더 양보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론을 부각하려면 '원내 투쟁'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속히 국회가 가동되도록 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 구성 협상이 진전이 없으니 어쨌든 이를 풀고자 하는 생각으로 다른 카드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전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과방위와 행안위 중 좀 더 비중을 두는 상임위를 민주당이 차지하고 한 쪽을 내줄 가능성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과 경찰 장악에도 모자라 언론·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여당과 정부의 오만과 독주를 제대로 견제하고 언론의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원 구성 협상을 제대로 마무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발언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과방위를 가져오는 데 좀 더 단점을 찍은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이 경우 민주당으로서는 행안위를 여당에 양보하고 다른 상임위를 확보하는 등의 대안을 검토하는 전략도 염두에 둘 가능성이 있다.

법사위를 양보한 가운데 반대급부 없이 '과방위·행안위 사수' 기조마저 맥없이 포기하게 되면 원내 지도부로서도 당내 구성원의 반발을 맞닥뜨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당대표 예비후보들 선전 다짐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예비후보자 포토섹션 행사에서 예비후보자들이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호 3번 이동학 전 최고위원, 기호 4번 이재명 의원, 기호 5번 강훈식 의원, 기호 6번 강병원 의원, 기호 7번 박주민 의원. 박용진, 김민석, 설훈 예비후보자는 행사에 불참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종민 “민주, 친문·586·이재명 강 건너야 위기 극복”

민주 혁신토론회에서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친문·586·이재명의 민주당” 등 3개의 강을 건너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첫 토론 발제에서 “지난 1년 ‘이재명의 민주당’, 문재인 정부와 ‘친문 정치’ 5년, ‘586 정치’ 30년을 근본적으로 반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친문계인 김 의원은 “민주당은 단순한 선거평가와 반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친문이 문제다, 586이 문제다, 이재명이 문제다”라고 써올 필요가 없다. 모두 문제다. 모두 반성하고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먼저 “민주당 정부를 주도했던 친문 정치, 586정치”는 실패했다”며 “촛불과 180석 이후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당이 아닌, 국민을 선도하는 민주당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데는 기여했지만, 국정운영에서는 할 일을 하지 못했다”며 “검찰개혁에서는 우리에게 대한 국민의 엄격한 잣대를 보지 못했다, 정치개혁에서는 부도덕한 승자독식 기득권 정치에 안주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이재명의 민주당”도 민주당 위기의 한 축이라며 “민심은 추진력, 현장성, 탈기득권을 기대하며 ‘이재명의 민주당’을 대안으로 선택했지만, 대신-지선을 거치며 대안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적극 지지층 결집에는 성공했지

만, 중도 확장력에는 한계가 뚜렷했다”며 “‘졌잘싸’ 노선에서 나타난 반성 없는 내로남불 정치, 대의보다 현찰을 추구하는 실리 정치, 민심에서 멀어지는 배타적 팬심 정치, 개인 인물에 의존하는 메시아 정치 등 기존 여의도 정치의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고 더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는 민주당의 반성·혁신·통합이 어렵다”며 “변화된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 민주당’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 등 27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부터 매주 화요일 10회에 걸쳐 연속 토론회를 열고 민주당 위기의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혁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박지현에 당대표 만류·이준석은 지난날 잊어야”

김종민, 젊은 정치인에 충고

국민의힘 김종민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과 만나 당대표 출마를 만류한 사실을 공개했다.

김 전 위원장은 18일 MBN판도라에서 “최근 박 전 비대위원장을 한 번 만났다”며 “대표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 출사표를 던지는 것이지 그런 가능성이 없는데 출사표를 던지는 것은 무모한 것이라는 충고를 해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리 젊은 혈기가 좋지만 그동안 정치적으로 쌓아온 자산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것을 어떻게 간직하고 갈 것이냐를 생각해야 하는데 그 간직하려는 것이 꼭 대표 출마로 이어지는 않는다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본인이 길거리 출마선언 하는 걸 보니 ‘역시 젊구나’ (라고 느꼈다)”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당 윤리위원회의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 후 전국을 돌며 당원들을 만나고 있는 이준석 대표를 향한 조언도 내놨다.

김 전 위원장은 “내가 대선도 지방선거도 이겼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감정이 있는 것 같다”며 “나라면 지난 일 잊어버리겠다, 사람이 자꾸 자기가 한 것에 대해 생각하면 정신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에게 ‘누가 기본 나쁜 소리 한다’고 해서 곧바로 반응을 보이지 마라’, ‘대표는 육박는 자리인데 일일이 반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충고한 적이 있다”며 “나도 비대위원장을 할 때 물러나라며 집안에서 데모까지 한 적이 있다, 그러려니 해야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에 김정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에 김정현(55·사진) 광산구갑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선출됐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19일 오전 시당 회의실에서 “2022년도 제7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김 위원장을 신임 시당위원장으로 만장일치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광주시당위원장 후보자 등록 접수 결과, 단독으로 입후보했다. 신임 시당위원장은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임명될 예정이다.

그는 인사말을 통해 “당원들께 헌신하고 광주시민에게 봉사하는 광주시당을 만들 것이다”면서 “당원과 소통하는 시간이 많이 갖고, 당원들의 의견을 시당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1 지방선거를 통해 광주시민들께

서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셨다”면서 “청년과 대학생, 여성, 원로 당원 등 신·구가 조화되는 미래 지향적인 정당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때 광주시민 여러분 앞에 약속한 광주발전 공약을 지켜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중앙당과 협의해 광주 현안을 논의하는 당·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정책활동을 강화해 일하는 시당을 만들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최원길 기자 cki@kwangju.co.kr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